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실습생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과 관련해 ~신속하고 효율적인 매칭으로 본국에서의 재취업 실현~

목적

출입국체류관리청은 코로나19로 해고되어 실습을 지속할 수 없는 기능실습생, 즉 특정기능외국인이 본국에서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연대해 특정산업분야의 재취업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. 또한, 일정의 요건 하에서는 체류자격 <특정활동>을 부여하고 외국인에 대한 본국에서의 고용유지를 병행 지원한다. 기능실습생이 일본에 들어올 수 없는 관계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취업촉진도 행한다.

지원 개요

출입국체류관리청은 지원 대상인 기능실습생의 전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특정사업분야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. 또한 각 분야의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칭이 가능하도록 한다. 한편 외국인체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등과 연대해 외국인들의 각종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한다.

체류자격상의 조치

- ▶ 체류자격 <특정활동(취업가)>
 - ▶ 체류기간 최대 1년
 - ▶ 2020년4월20일부터 실시(예정)
- ▶ **요건**
- 신청인의 보수액이 일본인 종사자의 보수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
 - 신청인이 특정기능외국인 업무에 필요한 기능 숙련을 희망할 것
(희망하는 특정사업분야와 관련된 기능시험 합격이 필요한 자에 한함)
 - 수용기관이 신청인을 적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것(외국인 수용실적 등)
 - 수용기관이 신청인이 수용기관의 업무를 통해 필요한 기능 등을 익히도록 지도·지원 할 것
 - 수용기관이 신청인에게 체류 중 일상생활 등에 관련된 지원을 적절하게 행할 것 등

고용유지지원 관련 이미지

